

여 내부 동조에 더불어민주당 '채상병 특검' 처리 속도전

민주, 5월 임시회에서 '채상병 특검' 처리 계획 정부·여당 공세 앞장서며 '정국 주도권' 잡기 총선 패배 후 민심 확인한 여당 이탈표 기대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매듭짓지 못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정권심판 민심을 확인한 국민의힘 내부의 동조에 특검법을 밀어붙이며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1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본회의를 열고 당일 채상병 특검을 처리할 계획으로 여당과 임시회 일정을 협상 중이다.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국회법상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한다면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 처리가 가능하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논의됐던 특검

법 등에 대해서는 (이번 국회 내) 처리를 한다는 기조"라며 "채상병 특검은 책임정치 차원에서 선거 과정에서도 논의가 지속돼 왔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던 만큼 410 총선 압승의 의미를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라는 민심으로 해석, 특검법 처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총선 다음 날인 11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특검법 처리 필요성 등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결과로 여당도 '정권 심판론'에 쏠린 민심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특검법 표결에서 이전과 같이 반대표를 던지기만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채상병 특검 처리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채상병 특검법 표결 처리를 추진



하는 데 대해선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이다"라며 "(찬성표 던질 계획에) 저는 그렇다"고 동의했다. 민주당 원내 한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도 민심을 확인한 상태인데 여당이 반대로

만 여론을 끌고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고리로 정국 주도권을 잡은 이후 '김건희 특검법' 등 처리에도

나설 가능성이 크다. 22대 국회에 입성할 조국 혁신당도 정부, 여당 관계자들을 겨냥한 특검법 처리에 민주당과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서선욱기자

조국 "총선서 재외국민 압도적 지지...높은 국격 위해 노력"

조국 "재외국민, 조국당 포함 야당에 압도적 지지 보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이번 총선은 날로 추락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격을 되살리기 위한 재외국민들의 눈물과 땀이 서린 노력이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재외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에서 저희 조국혁신당을 포함해 야당들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조 대표는 4·10 총선 재외국민 투표에서 조국혁신당이 득표율 38.2%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보다 득표율이 앞섰다는 내용의 표를 첨부했다.

조 대표는 "지난 2년간 대한민국 이미지가 훼손돼 '국격이 떨어졌다'는 한탄이 해외 곳곳에서 흘러나왔다고 들었다"며 "'눈 떠보니 조국이 선진국'이라 하셨던 재외국민들께서 고작 2년만에 '눈 떠보니 도로 후진국'이라 하셨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결과 야당들이 이겼다. 하지만 부족하다"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자유권은 물론 사회권이 보장되는 더 많은 선진국, 더 높은 국격을 이루기 위해 조국혁신당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슬비기자

해남군의회,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촉구



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지난 12일 오전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료 취약 지역인 전라남도의 국립 의과대학 신설에 대해 기존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의대 설립 방식에서 공모를 통한 의과대학 설립 방식으로 선회한 전라남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전남 서부권 지역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동서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로 추진하겠다는 전남도의 발표는 해남군민과 전남 서부권 도민에게 큰 실망감을 주었다"며, "전남도가 밝힌 공모 평가 요소는 동부권과 서부권의 서로 다른 의료 수요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으며 서부권 지역민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절박함을 지표로 담아낼 방법 또한 없기에 지역 갈등 심화는 물론 감정 골판 짙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자체가 공모를 거쳐 대학 특정 학과를 신청하는 규정과 관련도 없으며, 공모 신청은 전남도가 정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이에 대한 결정은 서부권 지역민의 생명권만 바탕으로 내몰릴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해남군의회는 "전남도의 원칙 없는 공모방식 결정이 전남의 동서 균형 발전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30여 년의 숙원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공모 방식을 철회하고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전남도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서부취재본부송준표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